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4일 (음력 5월 21일) 수요일

광주·전남 지방의회 여풍(女風) 거세다

광주 북구·광양·해남의회 잇따라 女의원 당선 의장단선거 한창...여성 의장 더 늘어나나 관심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여성 의장이 잇따라 선출되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인 고점례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 역시 여성의원인 주순일 의원이 당선됐다. 고 의장은 광주 북구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다. 광양시의회도 전남 제8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김성희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장은 제6대 의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3선과 함께 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 됐다. 해남군의회도 전남 이순이 의원이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됐다.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아직 의장단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여성 의장과 부의장 배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장선거를 앞둔 광주 서구의회 등지에서도 여성 의원이 의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58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 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에서 과거



고점례 의원



김성희 의원



이순이 의원

여성 부의장은 종종 있었지만 여성 의장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의정활동에 있어 여성 의원들의 세심함과 예리함이 남성 의원 못

지 않아 집행부가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사즉생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자 김진태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전 헌법재판관의 비대위원장이었지만 당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립만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며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혁신해도 우리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원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은 "그런 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과거의 프레임 을 바꿀 수 있다. 진지한 성찰의 결과"라며 이 전 재판관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전남 귀농·귀촌 4만명 넘었다...“성공 정착 지원”

농림부·통계청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공동 발표...전남농업기술원 “농촌 활력증진·인구 늘리기 앞장”



폭우피해 복구작업 하는 장병들

육군 제31보병사단 이순신연대 예하 정경대대 장병들이 2일 오후 전남 보성군 보성을 보성남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폭우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나해 전남의 귀농·귀촌인이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년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통계를 보면 전남의 귀농·귀촌인은 전년보다 2008명 증가한 4만607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은 전국이 1.9% 감소했지만, 전남은 0.1% 상승한 2909명 (1925가구)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귀촌은 2.7% 상승한 3만7698명(2만8173가구)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전남도도와 각 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시군 펌투어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귀농·귀촌 초기에 경험 미숙 등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강화, 농업인 단체와 멘토-멘티를 체결, 현장을 찾아가 진단·처방을 해주는 이동기술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수요 증가의 기회를 활용해 2015~2018년 귀농·귀촌인 12만 7000 가구를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농촌 활력증진 도모와 병행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정미 전 재판관을...

차리리 당의 문을 닫아라

아직도 동인 지원장 안 못 기리고...

고용환경개선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